

1

재정여건 및 편성방향

- 2017년은 올림픽 준비의 마지막해로 올림픽사업은 「마무리와 점검」을, 시민행복사업은 「관심과 실천」에 중점을 두어
- ⇒ 시민 모두가 함께 올림픽 성공개최를 준비하는 행복한 해로 실현

□ 2017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

- 세입은 올림픽효과 등으로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10%이상 증가하고, 이전수입도 국세의 세입여건개선, 복지정책 확대로 증가 예상
- 세출은 올림픽사업(경기장시설, 환경정비)의 시비부담이 가중되고, 정부의 복지정책확대, 주민불편 해소사업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

□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은

- 올림픽관련 시설과 환경정비 등 올림픽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,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 노력
 - 지방채발행 : 100억원, 특별교부세 목표액 : 100억원
- 현안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, 신규사업은 재원조달 가능 범위 내 우선순위에 의하여 투자
 - 신규사업은 가능한 추가재원 부담 없이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,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,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·폐지
-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는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,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원칙
 - 민간보조금과 행사·축제성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사전심의강화
-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민수혜도,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, 특혜 시비성 사업, 과도한 시비부담 사업은 축소 또는 편성제외